



2021년 5월 9일(제1034호) 부활 제6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8번 정도 명령하시지만, 요한 복음 안에서 명령은 단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한 번뿐인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공관 복음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거나 제자들을 파견하는 명령을 하셨지만, 요한 복음에서만만큼은 당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박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명령입니다. 사실 사랑보다는 미워하거나 아예 무관심 하는 것이 편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쁨이 자리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욕심에는 사랑짐에 대한 불안이 뒤따르고, 미움과 무관심은 고독과 내 마음을 괴롭히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사랑이 없는 자리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기에 생기는 불안과 고통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는 독서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는 이는 성당에 나오더라도 진정한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무언가 하지 않더라도 그저 같이 있음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하느님을 알게 되고, 사랑할 때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순간에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느님,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그곳

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하고,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내어 줄 수 있을 때, 바로 가장 큰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놓아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 욕심부리는 마음,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바로 목숨을 내어 주는 사랑의 완성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줄 때 의심하고 거부하지만 말고, 단혀 있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놓아주어야 할 목숨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하느님 나라의 기쁨 안에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새로운 생명과 활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 나아갑시다.



김장섭(필리핀) 신부  
홍지(12시어)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사도 10,25-26.34-35.44-48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1요한 4,7-10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5,9-17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집

## 일곱 번째 시집

성문에는 군인이 지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통행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변문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사람들 틈에 끼어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군인이 저에게 통행권을 요구하려는 차례가 되자 세관원들한테로 갔습니다. 저는 요행히 몸집이 큰 소들의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관에서는 여행자들에게 한 명씩 세관장 앞으로 나아가 성명을 대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어두웠으므로 불을 켜놓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관장 외에도 다른 세관원 한 사람이 높은 곳에 서서, 혹시 누가 달아나는가 하여 두루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미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기에 저는 슬그머니 그들 뒤를 따라나섰습니다. 그런데 저의 등뒤에서 세관원이 저를 부르며 통행증도 내지 않고 가느냐고 호령하기에, 저는 귀먹은 체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연거푸 저를 부르기에 “무슨 말씀이오. 통행증은 벌써 내드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뒤쫓아오는 줄로 믿고 달아나 성밖의 변두리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저를 맞아 줄 집이 한 채도 없었으므로 밤새도록 대략 1백 리가량 걸었습니다. 동이를 무렵에 너무나 추워서 몸을 녹이려고 어떤 조그마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제 얼굴과 의복을 살펴보고, 또 말소리를 들어 보고는 외국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상을 알아보려고 제 머리를 살펴보고, 제가 신은 중국 버선을 검사하였습니다. 한 사람만 저를 동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반대하여 제가 어디로 가든지 잡히리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백하고 또 조선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근본이 변할 리 없다고 대답하고, 비록 잡힌다 할지라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마음은 편안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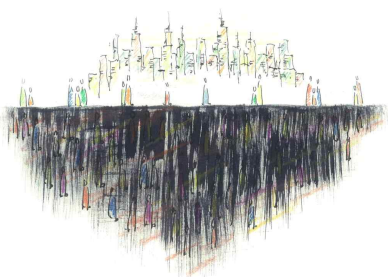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집』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만든 세상  
이만하면 살만하지.

사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놓치고  
못 보고, 못 듣고

좀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성화이야기

성령강림



이 작품을 본 어떤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그림의 주제는 성령강림이지만,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가지 형태를 띤 사물이 아닌 것처럼, 성령을 맞이하고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반응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은혜 및 행하는 행동 또한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화가가 나타내고 있다고 말이다.

에밀놀데, 1909년 작  
캔버스 위 유화, 87x107cm  
베를린 미술관, 독일

화면 가까이 앉은 제자들 위에 보라색 불길로 표현된 성령이 강림하고 계시며, 이들의 표정은 각기 다양하다. 어떤 제자는 기뻐하는 반면, 어떤 이는 초조하거나 흥분한 상태로 보이며, 어떤 제자는 다른 제자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화가는 “깊은 영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할 수 없는 필요에 따라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인물 중 어떤 이들처럼 행동할까.

김은혜(엘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포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부활 제6주일: 해군중앙 김진수 신부

◆ 교구장 동정

- 회의
- 때·곳 : 5월 11일(화), 화상회의
- 국장회의 11:00, 사제평의회 14:00, 참사회의 16:00

◆ 군중교구 연무대 상당 사무장 모집

- 자격 : 컴퓨터 사용 가능, 운전면허(1종 보통) 보유자
- 인원 : 1명
- 접수 : 5월 12일(수)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 ‘신부(神父)의 책장’ 인내

- 방영 채널 : 네이버 오디오클럽,  
군중교구 유튜브
- 네이버 오디오클럽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군중교구 유튜브 :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